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중국, WTO '무역 편의화 협정' 의정서 수용 결정

지난 8월 국무원은 WTO '무역 편의화 협정' 의정서를 수용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8월 23일, 상무부의 고우후청(高虎城) 부장은 동아시아 경제무역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무역 편의화 협정'의 16번째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WTO '무역 편의화 협정' 의정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참여한 첫 다변 화물무역협정입니다. 당해 의정서의 발효 및 시행은 중국의 항구 종합관리의 현대화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주요 국가들의 무역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원, 금융리스업 정책 완화

9월 7일, 「금융리스업 발전을 가속화할 데 관한 국무원 사무청의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이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도의견에서는 자격요건을 간소화하여 금융리스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를 완화하고 금융리스사가 금융리스거래와 관련된 저당권, 질권 설정 등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도의견에서는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은행, 보험, 신탁, 펀드 등 여러 유형의 금융기관이 리스크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융리스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금융리스사는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리스사의 경우 주식 발행, 자산 유동화 등 기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도의견의 발표는 금융리스업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절차 규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위생 및 계획출산위원회, 병원 등급별 진료제도 5년 내에 전면 구축 시사

중국 위생 및 계획출산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원 등급별 진료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중국의 대형 의료기관은 장기환자의 포화상태로 진료난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소형 의료기관의 환자수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 등급별 진료제도를 점차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진료체제로부터 병원 등급별 진료제도에 이르기까지의 안정적인 과도를 위하여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5년 내에 전면 구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우수한 의료진을 소형 의료기관에 공급하여 소형 의료기관의 진료 능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증상에 상관없이 환자들이 상급 의료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국무원,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에 관한 의견」 발표

최근, 국무원은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해당 제도의 총체적 요구, 주요 업무 및 부수적인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란 국무원이 리스트 형식으로 중국 내에서 투자를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업종, 분야, 업무 등을 열거한 것으로서, 각 지방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그에 따른 관리조치를 취하는 관리제도를 말합니다.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는 금지류와 제한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리스트에 언급되지 않은 업종, 분야, 업무 등은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합니다.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는 '시범운영 후 점진적으로 보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5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2018년부터 전국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